

총성 없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김호경 · 소설가

가까운 과거의 어느 날, 전선은 바다에 펼쳐졌다. 바다는 깊고 광대해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인간은 그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쟁터로 변한 바다는 어두웠다. 그러나 그 어둠 뒤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곳이기엔 인간은 영원불멸의 천년성을 구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그 바다는 어디인가? 그곳은 가상의 바다였다. 현실인 듯 싶으면서도 현실이 아니고 달리 보면 가상이나 현실이 아닌 곳이다. 그 가상의 바다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누구든 그 만물을 사고 팔 수 있었다. 가상의 바다를 통해 만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책이었다. 왜 책이 가장 인기가 있냐고 묻지 마라. 그것은 인간의 앞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정의 내릴 수 없는 시절 무렵에는 삼군이 정립하고 있었다. 청청군, 백백군, 홍홍군. 그들은 현실의 세계에서 오랜 내공과 무술을 바탕으로 독서천하를 분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은 곧 현실로 종결되고 자신의 종파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세계를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를 개척할 군선을 건조해 진출시켰으니 이를 일러 제2차 대항해시대라 한다.

가상의 바다는 드넓기 그지없어 일파의 무림이 지배할 수 없었으니 마침내 청청, 홍홍, 백백의 삼국정립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몇 년간 그 세계에서는 독서객들을 초빙하기 위한 전쟁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전혀 예기치 못한 흑흑군이 황황군과 연합해 바다에 진출해 들어왔다. 흑흑군은 원래 정보의 바다의 일원이기는 해도 차원이 다른 무림의 일파였다. 그런데 흑흑군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책을 갈구하는 독서객들은 바다의 표면에 떠 있는 책 정보보다는 바다 깊숙이 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정보를 더욱 많이 원하고 있었다. 흑흑군과 연합한 황황군은 바다 건너의 정보에 뚜렷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것이 삼군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였고 독서객을 유인하는 강점이었다”

차원을 무시하고 이 항해전에 뛰어든 것이다. 그것도 세계 최대의 책 무기고라 인정받는 황황군과 연합해, 바다는 혼비백산 발칵 뒤집어졌고 전쟁은 치열해졌으며 결국엔 4대 무림파가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날, 한 독서객이 강호를 표표히 유람하기 시작했으니 그는 지적 욕구에 목말라하던 대독서객이었다. 그는 1차로 청청군의 도량을 두드렸다. 청청군의 맹주 책(冊)장군은 그에게 말하길,

“우리의 책성(冊城)에는 없는 책이 없사옵나. 우리는 귀하 같은 대독서인들을 위해 항시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도성에 접속하시어 단 1권이라도 책을 구입할 시에는 최상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노니 혜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인이라는 혜택이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책은 할인이 되지 않는 강호의 오랜 약속이 있습니다만 저희 청청군은 독서인의 만족을 위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혜택이옵니까?”

청청군의 맹주는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들어 독서객을 유인했다. 독서객은 잠시 생각했다. 할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그는 그 혜택에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청청군의 맹주는 분명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독서객은 오랫동안 가상의 바다를 항해해 백백군의 도량을 방문했다. 백백군의 장수 컴풍(Com風) 대도독은 말하길,

“우리는 빠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귀하가 우리의 성에 접속하시어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책은 이미 귀하 곁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보다 빠르고 번개보다 빠릅니다. 우리의 속력은 가히 귀신과도 같습니다.”

독서객은 그의 설명을 듣고 물었다.
“할인은 되지 않습니까?”
“귀하가 주지하다시피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호에서의 불문율이며 천년을 이어 내려온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 건너 청청군은 할인을 한다고 소인은 들었소이다만.”

“할인은 불가합니다. 대신 저희는 신속한 서비스에 덧붙여 사은품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이라면?”
“독서를 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독서객은 역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책이지 사은품이 아니다. 독서객의 마음에 충만함은 일지 않았다. 독서객은 그곳을 떠났고 컴풍대도독은 그가 꼭 재방문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독서객은 거친 풍랑을 헤치고 흑흑군의 도량을 방문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책을 갈구하는 독서객들은 바다의 표면에 떠 있는 책 정보보다는 바다 깊숙이 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정보를 더욱 많이 원하고 있었다. 흑흑군과 연합한 황황군은 바다 건너의 정보에 뚜렷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것이 삼군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였고 독서객을 유인하는 강점이었다.

흑흑군의 맹주 북(BOOK)장군은 독서객에게 자신이 구축한 저렴한 비용과 방대한 정보의 양을 제시했다.

“우리 흑흑성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책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값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귀하의 지적 욕구는 일거에 해소됩니다. 현대세계에서는 바다 건너 지식에 더 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만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독서객은 북장군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북장군은 이 독서객이 자신의 성으로 오리라 굳게 믿어마지 않았다. 그러나 독서객은 아무런 연결없이 그곳을 떠나 마지막으로 백백군의 도성에 도착했다. 백백군의 맹주는 성심성의껏 자신이 축조한 책성(冊城)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이 가상의 바다에서는 누구나 다 최고의 정보 데이터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책의 종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저희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하의 정신과 욕구에 맞는 가치 있는 책들을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는 할인하지 않으며 사은품도 제공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의 가치에 최상의 중점을 둡니다.”

맹주의 설명이 끝나자 독서객은 흡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찾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나는 오랫동안 진정한 책을 찾아 강호를 표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할인도 아니며 사은품도 아니며 책이 지닌 가치이다. 그 가치는 나의 정신과 합치돼야 한다. 아! 이 맹주는 나의 마음을 환히 간파하고 있다. 이 자는 책의 가치를 아는 자다.

그리하여 독서객은 오랫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백백군의 도성에 들어가 몸과 정신을 편히 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상의 바다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성의 맹주들은 부유하는 독서객들을 초빙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루고 있다. ❖